

친환경 광고, 그대로 '복붙'해도 괜찮을까? 그린워싱 피하는 방법

실제로는 환경에 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 합니다. 근거 없는 '친환경', '무독성' 표현 등이 해당하는데요.

그린워싱으로 인해,

- ✓ 소비자는 부당한 환경성 정보로 가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,
- ✓ 진짜 친환경 제품 생산·판매 기업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이유로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10에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그렇다면, 제품의 우수한 환경성을 그린워싱 위험 없이 어떻게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

실증 가능한 문장 사용하기

'친환경' 같은 포괄적인 표현을 하려면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 사실을 객관적·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며,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여 관리된다면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예시

환경표지 인증(EL000)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



그 밖의 '친환경' 유사 표현은?

환경친화적, 자연친화적, Eco friendly, 자연에 이로운, 자연을 생각하는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들

구체적인 문장 표기하기

「환경성 표시·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」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'무독성' 등의 절대적 표현은 모든 경우에 있어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
예시

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3대 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) 불검출

그 밖의 '무독성' 유사 표현은?

유해화학물질 불검출, 환경호르몬 ZERO, 무공해, 인체유해물질 FREE, 독성물질 무함유, 인체무해, NON-TOXIC 등 입증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표현들



올바른 환경성 표시·광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?



ECOSQUARE 를 통한 '환경성 표시·광고 제도' 완전 정복 (<https://ecosq.or.kr>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튜브 '환경성 표시·광고 바로알기' 교육 열강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튜브 '환경성 표시·광고 바로알기' 교육 열강



'제품 환경성 표시·광고 길라잡이' 정독



제품의 환경성 주장을 점검하고 싶다면?

부당한 환경성 표시·광고 대국민 체크리스트* 진단

*제품 환경성 표시·광고 길라잡이 부록 중



환경성 표시·광고 사전검토 신청

